

#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오효숙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Hyo-Sook Oh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교 2학년 간호학생 194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별, 성격성향,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성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53.1%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 융합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which influe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A total of 194 second year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nursing department in Gwangju.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self-administrated from November 2 to 30, 2015. I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personality disposition, applied motivation,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of campus life, and school grad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satisfaction on major and school grade were significant 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plaining 53.1% of the variables. In conclusion, to enha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 and curriculum for increasing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nd academic self-efficacy.

**Key Words**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Nursing convergence education

Received 30 June 2017, Revised 31 July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Hyo-Sook Oh(Honam University)  
Email: ohs0@honam.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가공되는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로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간호사는 다양한 간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스스로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세우며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고 획득해 나가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1]. 따라서 간호학생이 향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간호사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미리 학부과정에서부터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주도적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요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학습자원의 확보,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및 실행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으로[2],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단계를 거친다[3].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높고[4], 간호사의 간호실무 수행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5]. 그러므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습동기의 개념은 학습을 유발하고 이를 유지시키며, 학습의 방향을 정해주거나 수준 및 강도를 결정하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6]. 이러한 학습동기는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학습능률과 학습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해 열정적이고 흥미 및 호기심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며 방해를 극복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학습동기 하위요인 중 하나인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계속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또는 학습조력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수단이 의사소통능

력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대화를 이끌어 내는 간호사의 능력과 적절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7], 전문직 간호의 핵심기술이다. 자기주도학습이 고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학습이 아니라 교사, 멘토, 동료, 교육기관 등 매우 다양한 협조자들의 도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전체의 계획, 실행 및 평가 등의 책임을 지는 학습이다[8]. 따라서 최근에는 자기주도학습의 과정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보다는 관련된 개인들이 협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자기주도학습을 협동학습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다. 또한 Jo[9]는 자기주도학습이 대인관계 또는 대화 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지각된 효능감을 의미한다[10].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처한 도전적인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며[11],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발전과 지식의 증가와 같은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10].

최근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교수법과 관련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효과[12, 13], 자기주도학습과 문제해결능력[4, 14], 임상수행능력[15], 자기결정동기[16], 창의성[17], 전공선택 동기[18], 셀프리더십[19] 등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종교, 성별, 전공 만족도 등이 있었다[20].

이상을 종합해볼 때, 학습동기와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의 주체로서 간호학생의 학습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습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어느 정

도 되는지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위한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첫째,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간호학과 학과장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지도교수의 협조 하에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서를 받고 구조화된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율을 100%였지만 응답이 불성실한 6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94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05, 검정력( $1-\beta$ )=.95, 효과 크기=.15, 그리고 예측변수 12개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이 184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 2.2 연구 도구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8문항, 학습동기 25문항, 의사소통능력 25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 자기주

도학습능력 15문항 등 총 10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 2.2.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학습자들이 학습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에 대해 주의력 집중, 적절성, 호기심, 도전성, 만족감,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신념과 의욕의 정도를 의미[21]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21]이 개발한 척도를 말한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으로는 본질동기 6문항, 비본질동기 6문항, 계속동기 6문항, 수업동기 7문항의 총 2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1]의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이 .92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15이었다.

#### 2.2.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이 처한 상황 내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22].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Fritz, Brown, Lunde와 Banset[23]가 개발하여 Choi와 Cho[2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사소통의 집중도, 이해와 해석, 분석과 평가, 반응, 기억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 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능력의 총점 범위는 각 하위 요인별로 5-25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 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 하위 요인별로 .692-779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은 0.931로 나타났대[25].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11이었다.

#### 2.2.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26].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27]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수준 선호 10문항의 총 28문항이고 6점 Likert 척도

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의 연구[27]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77-.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846이었다.

### 2.2.4 자기주도학습능력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이 되도록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ee 등[3]이 개발하고 Jo[9]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변인은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계획의 문항은 ‘학습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등이고, 학습실행의 문항은 ‘과제나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등이며, 마지막으로 학습평가의 문항은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가 왜 잘나왔는지 혹은 왜 잘못 나왔는지 스스로 평가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자기주도학습능력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712-.843으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895이다[9].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910이었다. 하위변인 중 학습계획의 Cronbach's  $\alpha$  값은 .806, 학습실행 .764, 학습평가 .716로 나타났다.

### 2.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의 차이는 ANOVA, t-test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 3)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 4)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을 반응변수로 포함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은 18명(9.3%), 여학생은 176명(90.7%)로 여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20세(63.9%)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성향으로는 내향적 성향이 82명(42.3%), 외향적 성향이 58명(29.9%)으로 내향적 성향이 더 많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로는 취업률 고려가 76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적성을 고려해서 60명(30.9%), 마지막이 타인의 권유 58명(29.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52명(26.8%)였고 보통이다가 120명(61.9%), 낮다가 22명(11.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높다가 40명(20.6%), 보통이다가 130명(67.0%), 낮다가 24명(12.4%)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학습법은 강의법과 문제풀이 등이 98명(50.5%), 실습병용강의가 70명(36.1%), 협동학습이 26명(13.4%)로 나타났고 이전학기의 성적은 A학점이 28명(14.4%), B학점이 102명(52.6%), C학점이 60명(30.9%), D학점이 4명(2.1%)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4)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18 ( 9.3)
	Female	176 (90.7)
Age(years)	≤ 19	40 (20.6)
	20	124 (63.9)
	> 20	30 (15.5)
Personality disposition	Introverted	82 (42.3)
	Extroverted	58 (29.9)
	Don't know	54 (27.8)
Applied motivation on department of nursing	Employment rate	76 (39.2)
	Others persuasion	58 (29.9)
	Consider aptitude	60 (30.9)
Satisfaction on major	High	52 (26.8)
	Moderate	120 (61.9)
	Low	22 (11.3)
Satisfaction on campus life	High	40 (20.6)
	Moderate	130 (67.0)
	Low	24 (12.4)
Preferred teaching-learning method	Lecture, quiz, representation	98 (50.5)
	Practice combined lecture	70 (36.1)
	Cooperation learning (PBL, TBL)	26 (13.4)
Previous semester grade	A grade	28 (14.4)
	B grade	102 (52.6)
	C grade	60 (30.9)
	D grade	4 ( 2.1)

### 3.2 대상자의 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된 결과, 학습동기는 총 125점 만점에 83.2점으로 나왔으며 하부요인으로는 비본질 동기가 21.6점으로 가장 높았고 계속동기가 18.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결정능력은 총 125점 만점에 91.4점으로 나왔고 하부요인으로는 의사소통 집중도가 19.2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억이 16.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총 168점 만점에 97.8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으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3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제난이도수준이 3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총 75점 만점에 53.5점으로 나타났고 학습실행이 19.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평가가 17.0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Table 2>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subjects

Variable	Subcategory	M±SD	Range
Learning Motivation	essential	21.11±2.99	6-30
	non-essential	21.62±3.09	6-30
	continuation	17.97±3.73	6-30
	class	22.49±3.73	7-35
	total	83.21±11.37	25-125
Communication skill	concentration	19.15±2.66	5-25
	understanding	18.46±2.17	5-25
	analysis	18.45±2.23	5-25
	response	18.39±2.32	5-25
	memory	16.89±2.45	5-25
	total	91.35±9.87	25-125
Self-efficacy	degree of difficulty	30.70±5.49	10-60
	self-control	39.59±5.37	10-60
	confidence	27.58±6.01	8-48
	total	97.84±11.62	28-168
Self-directed	Planning	17.06±3.07	5-25
	Implementation	19.45±2.75	5-25
	Evaluation	17.03±2.60	5-25
	Total	53.52±6.92	15-75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별, 성격성향,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이 성격을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경우보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을 고려해서 지원한 경우가 취업률이나 타인권유보다는,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이전 성적이 B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점수가 더 높았다<Table 3>.

<Table 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elf-directed learning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18)	49.0±7.1	8.83* (.003)
Female(176)	54.0±6.6	
Personality disposition		
Introverted <sup>d</sup> (82)	53.2±7.1	4.28* (.015) (b>c)
Extroverted <sup>b</sup> (58)	55.6±6.7	
Don't know <sup>c</sup> (54)	51.9±6.4	
Applied motivation on department of nursing		
Employment rate <sup>a</sup> (76)	52.2±6.4	7.36* (.001) (a,b<c)
Others solicitation <sup>b</sup> (58)	52.3±7.3	
Consider aptitude <sup>c</sup> (60)	56.3±6.4	
Satisfaction on major		
High(52)	57.6±5.3	28.64* (<.001)
Moderate or low(142)	52.0±6.8	
Satisfaction on campus life		
High(40)	56.9±6.2	12.45* (.001)
Moderate or low(154)	52.7±6.8	
Experience of cooperative learning		
Yes(166)	53.7±6.7	0.81 (.369)
No(28)	52.4±7.8	
Preferred teaching-learning		
Lecture, quiz, presentation, online(98)	52.3±7.0	0.17 (.844)
Cooperation learning(PBL, TBL)(26)	54.2±6.4	
Practice combined lecture(70)	53.6±7.0	
Previous semester grade		
Over B grade(130)	55.1±6.5	22.4* (<.001)
Under C grade(64)	50.3±6.7	

\*p<.05

### 3.4 대상자의 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동기(r=.626, p<.001), 의사소통능력(r=.509,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382, p<.001)

에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습동기는 의사결정능력 ( $r=.439, p<.001$ ), 학업적 자기효능감( $r=.369, p<.001$ )에 순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의사결정능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r=.330, p<.05$ )에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Variable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Self-efficacy
Communication skill	.439* ( $p<.001$ )	-	-
Self-efficacy	.369* ( $p<.001$ )	.330* ( $p=.001$ )	-
Self-directed	.626* ( $p<.001$ )	.509* ( $p<.001$ )	.382* ( $p<.001$ )

\* $p<.05$

### 3.5 대상자의 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전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별, 간호학과 지원동기, 대학생활 만족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리고 성적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는 .021 - .626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65 - .91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0 - 1.54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잔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F=44.631, p<.001$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531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동기 (.34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의사소통능력(.288), 성적 (.262), 학업적 자기효능감(.134), 전공만족(.11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Variables	B	S.E	$\beta$	t(p)	Adj R <sup>2</sup>	F(p)
constant	6.567	4.046		1.623 (.106)		
Learning Motivation	.212	.037	.349	5.691** ( $<.001$ )		
Communication skill	.202	.040	.288	5.010** ( $<.001$ )	.531	44.631** ( $<.001$ )
Self-efficacy	.080	.032	.134	2.451** (.015)		
Satisfaction major*	1.820	.843	.117	2.159** (.032)		
grade*	3.842	.758	.262	5.072** ( $<.001$ )		

\*dummy variable: satisfaction on major(high), grade(over B)

\*\* $p<.0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는 125점 만점에 83.2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 비본질동기가 가장 높았고 계속동기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14]에서도 87.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가 약간 낮았으나 하부요인이 비본질동기가 높고 계속동기가 낮은 것은 유사하였다. 즉 간호학생들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유인체나 보상에 의해 열심히 학습하는 동기는 높았지만 외적 간섭 없이 스스로 학습내용을 계속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계속동기는 낮음을 의미한다. 보통 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지만 그중 계속동기가 높으면 자기주도학습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6] 간호학생들의 계속동기를 높이는 학습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은 총 125점 만점에 91.4점(100점으로 환산하면 73.1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것은 의사소통의 집중도이고 가장 낮은 것은 기억으로 나타났다. Lee[25]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의사소통능력이 3.75(100점으로 환산하면 75점) 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기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의사소통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듣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세부적인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역동적인 보건의료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경험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총168점 만점에 97.8점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과제난이도수준이 가장 낮았다. 즉, 간호학생은 학습을 잘 하기 위해 계획하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자기조절효능감은 높은 반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과제난이도수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결과가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결과[12]보다 약간 높았으며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점은 유사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구체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28], 학업을 수행하는 자신에 대한 능력이 성공적으로 느껴질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 낮아지게 된다[29]. Huh[6]도 학습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학습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과제난이도 수준을 고려한 교수법이나 교과 운영전략을 개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75점 만점에 53.5점(100점 환산하면 71.3점)으로 나타났고 학습실행이 가장 높았고 학습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학습을 끝까지 하거나 과제를 기한에 맞게 제출하는 학습실행은 높고,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를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학습평가 점수는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도구를 활용한 연구[30]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은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69.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특성을 지닌 성인학습자로 성숙해간다는 Knowles[2]의 기본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간호학생이 간호전문직 성장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며, 미래에 간호사로서 급변하는 간호실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부터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성별, 성격성향,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여학생인 경우,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을 고려해서 지원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성적이 B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기주도적인 경향이 있고[31]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더 높다고 나타난 연구[32]와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18], Park and Jeong[20]은 대학생활 적응에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변수였다고 하면서 전공만족도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증가하면 대학생활만족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역량을 의미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도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보고한 연구들[32, 33]을 볼 때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학생들은 학습동기와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동기와 .63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다른 연구[34]에서도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동기가 .72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사하였다. 즉 높은 동기 수준을 나타낸 집단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았고[35]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36]. 즉 자기주도학습이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19, 37]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는 학습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동기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의사소통능력, 성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들[6, 16, 27]에서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가장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한 결과와 부합하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고려할 때 학습동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동기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을 수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의 상호간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Jo[9]의 연구에서도 탄력성이 학습동기를 매개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협동과 의사소통능력이 포함되고 있다. Kim[38]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결과와 같이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이 직접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 연구[39]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40]처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적 즉 학업성취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습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6],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라 도전감이 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도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전공만족도가 자기주도학습을 설명

하는 변수라고 한 연구[17]와 대학생활 적응에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변수였다고 한 연구결과[20]를 볼 때,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공에 대한 학습몰입을 높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가시키고 대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간호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과 태도 등의 간호핵심역량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향후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있는 간호사로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41]. 따라서 간호학생 때부터 요구되고 있는 학습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간호학생은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학업적으로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상호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학업성취도와 전공만족도가 증가되고 더불어 자기주도학습능력도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교 2학년 간호학생 194명이었고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총 75점 만점에 53.5점으로 나타났고 학습실행이 19.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평가가 17.0점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별, 성격성향,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성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53.1%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관련된 변인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인에 대해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J. J. Yang, M. Y. Park,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0, No. 2, pp. 271-277, 2004.
- [2] M. Knowle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Toronto : The Adult Education company, 1975.
- [3]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Report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4] Y. H. Kim, Y. M. Lee, "Relationship of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after practice evaluation of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using role pla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 pp. 147-155, 2012.
- [5] J. H. Choi, J. H. Jeong, "The effect of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on nursing practice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7, No. 1, pp. 16-26, 2011.
- [6] N. J. Huh, "An analytical study on the predictability of self-directed learning on learners' variables,"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2005.
- [7] A. Deppermann, "Research on doctor-patient-interaction in German speaking countrie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 2, No. 1 pp. 40-50, 2007.
- [8] Caffarella, R. S., O'Donnell, J. M., "Self-directed adult learning: A critical paradigm revisited",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 37, pp. 199-234, 1987.
- [9] Y. J. Jo,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s connec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adult learners in high educational institutions",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2010.
- [10] A. Bandura,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1977.
- [11] M. H. Shin,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problem-solving ability between students with high level of self-efficacy and students with low level of self-efficacy",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2, No. 4, pp. 30-37, 2009.
- [12] S. J. Kang, E. J. Kim, H. J. Shin,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33-41, 2016.
- [13] K. O. Choi, Y. M. Park,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0, No. 2, pp. 154-159, 2014.
- [14]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28-337, 2012.
- [15] J. H. Lee, S. Y. Jun, J. H. Jung, K. M. Woo, "The

-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by type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1, pp. 118-130, 2017.
- [16] K. A. Song, “A study on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 10, No. 3, pp. 177-202, 2006.
- [17] O. H. Kim, J. J. Sun, J. H. Kong,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5, pp. 2809-2821, 2015.
- [18] Y. J. Kim, H. Yoo, M.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61-271, 2016.
- [19] S. Y. Lee, Y. Y.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09-318, 2016.
- [20] H. S. Park, K. S. Jeong,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49-557, 2013.
- [21] Y. R. Kim, “The validity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 and school adaptation scale, and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wo scale variables”, *Hongik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Vol. 17, pp. 3-39, 2000.
- [22] G. H. Song, “The effect of employe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2013.
- [23] Fritz, S., Brown, F. W., Lunder, S. P., & Banset, E. A., “Interpersonal skill for leadership”, NJ : Printice Hall, 1999.
- [24] I. S. Choi, U. J. Cho,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 Changjisa, 2010.
- [25] K.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resilience of infant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5.
- [26] Schank, D. H.,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6, pp. 207-231, 1991.
- [27]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2001.
- [28] J. A. Lee,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major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p. 2329-2344, 2012.
- [29]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pp. 559-566, 2013.
- [30] K. O. Choi, Y. M. Park,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0, No. 2, pp. 154-159, 2014.
- [31] G. J. Kim, J. W. Jeong, “Self-directed learning theory in adult education and its application”, *Journal of Social Educational Research*, Vol. 19, pp. 25-46, 1994.
- [32] Y. P. Hong,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 [33] H. Y. Kim,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personality type, and attribution styles on academic achievement in adult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Vol. 21, No. 1, pp. 211-232, 2000.
- [34] J. B. Kim, “The influe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motiv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1991.

- [35] C. S. Lee, “A study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 [36] C. D. Chung, K. H. Kang, “Analysis on core abiliti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ientific gifted students’ life skills - In focus of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Scientific Education*, Vol. 33, No. 2, pp. 290-303, 2009.
- [37] K. H. Lee, J. Y.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7, No. 4, pp. 33-57, 2014.
- [38] M. Kim,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6, pp. 609-617, 2016.
- [39] S. I. Park, Y. K. Kim,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flow factors, flow level, achievement unde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14, No. 1, pp. 93-115, 2006.
- [40] A. K. Yang, H. J. Cho,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upon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 8, No. 3, pp. 61-82, 2010.
- [41] S. H. Lim, “Effect of team-based learning on anatomy subject for biological nursing science educationa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0, pp. 7098-7108, 2015.

오 효 숙(Oh Hyo Sook)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1988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 석사)
- 2002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 E-Mail : ohs0@honam.ac.kr